



“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”



2017 국외연수 결과보고서

- 2017. 10. 11 ~ 10. 13 / 일본(세토시, 나고야) -



이 천 시 의 회

□ 목 적

- 세토시의회와 2006년부터 지속되어온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선진 의정활동을 견학하여 우리시에 접목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□ 기 간 : 2017. 10. 11. ~ 10. 13.(2박3일)

□ 방 문 지 : 일본 세토시, 일본 나고야

- 10. 11(수) : 일본 세토시
- 10. 12(목) : 일본 세토시, 일본 나고야
- 10. 13(금) : 귀국

□ 연수명단

연번	소 속	직	성 명
1	이천시의회	부 의 장	홍 헌 표
2		의회운영위원장	김 학 원
3		자치행정위원장	김 하 식
4		산업건설위원장	김 용 재
5		의 원	김 문 자
6		의 원	서 광 자
7	의회사무과	전 문 위 원	장 병 준
8		의 사 팀 장	이 혁 세
9		주 무 관	이 원 화

□ 연수일정

일 자	지 역	교통편	시 간	주 요 내 용
10/11 (수)	인 천 세토시	OZ 122 (아시아나항공) 전용차량	9:00 10:50 13:30 14:30 19:00	인천 국제공항 출발 중부 국제공항 도착 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 관람 세토구라 뮤지엄 관람 세토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의 만찬
10/12 (목)	세토시 나고야시	전용차량	10:00 13:00 14:30 17:00 18:00	세토시의회 미팅 세토시 시장과 세토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의 오찬 마네키네코 뮤지엄 관람 나고야 이동 휴식
10/13 (금) 9/16 (월)	나고야시 인천공항	전용차량 OZ123 (아시아나항공)	11:00 13:00 18:50 20:50	나고야 성(천수각 포함) 견학 타워 오아시스 21 주변관광 중부 국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

□ 일 본 (日本)

○ 일반현황

- 1) 위 치 : 아시아 동부
- 2) 면 적 : 337,835km²
- 3) 수 도 : 도쿄(동경)
- 5) 종족구성 : 일본인(98.5%), 기타 민족(1.5%)
- 6) 행정구역 : 43현(縣) 1도(都) 2부(府) 1도(道)

□ 방문도시

○ 세토시(瀬戸)일반현황

- 위 치 : 일본 아이치현
- 면 적 : 111km²
- 특 징 : 일본 제일의 도자기 공업도시, 세토시 공장의 70%가 도자기 공장



○ 나고야(名古屋) 일반현황

○위 치 : 일본 아이치현

○면 적 : 326.45km²

○지역특성 : 긴키(近畿)지방에 있는 아이치현(愛知縣)의 현청 소재지이며, 일본 열도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일본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.

○주요산업 : 중화학공업 제품이 전체 공업생산량의 61%를 차지하며 그밖에 섬유, 도자기, 목재, 식품 등의 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



3 방문내용

□ 중부공항 → 세토시(瀬戸市) 1일차(2017.10.11)

1) 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 관람

○나고야 중부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세토시로 이동하여 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에 도착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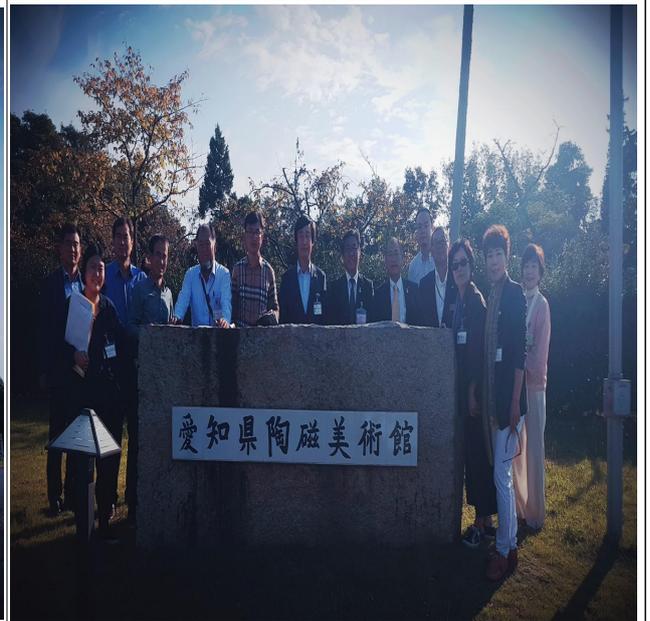
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을 관람하기 전에 Tosuian 티하우스

에서 일본다도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관람 전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갈증도 풀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. 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 전시실은 사진촬영 불가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작품들을 담지는 못하고 눈으로 담았다.

Tosuian 티하우스, 일본다도문화체험,



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



2)세토구라 뮤지엄 관람

- 아이치현 도자기 미술관을 관람하고 근처에 세토 뮤지엄으로 향했다. 세토구라 뮤지엄은 세토 도자기의 역사와 함께 옛 방식의 도자기 제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어서 감회가 새로웠다. 그리고 제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모습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. 그리고 세토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인형의 정교함에 감탄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.

세토구라 뮤지엄 관람



3)세토시의회 만찬 참석

- 저녁에는 세토시의회 주관으로 세토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. 만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찬이 진행 되었고,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.

세토시의회 만찬 참석



□ 세토시(瀬戸市) 2일차(2017.10.12) → 나고야

1) 세토시의회 10시 미팅

- 2일차에는 10시에 세토시의회와 미팅 및 회의가 있었는데 세토시의회에서 세토시의회의 운영 및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, 그 뒤에 서로 문답을 가지는 뜻 깊은 시간이 있었다.

세토시의회 미팅



2) 세토시 시장과 세토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의 오찬

- 세토시의회 10시 미팅 후 세토시 시장과 세토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의 오찬이 있었다. 어제 저녁의 만찬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었던 참이라 오찬장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 되었다.

세토시 시장과 세토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의 오찬



3) 마네키네코 뮤지엄 관람 → 나고야 이동

- 오찬 후 마네키네코 뮤지엄 관람을 하였다. 마네키네코는 일명 '복을 부르는 고양이'로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돈을 부르고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손님을 부른다고 한다. 그래서 요즘에는 돈과 손님 둘 다 원하는 양손을 든 마네키네코가 인기라고 한다.

마네키네코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세토시라서 세토시에 마네키네코 뮤지엄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. 그래서 다른 일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마네키네코 또한 마네키네코 뮤지엄에 소장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
마네키네코 뮤지엄 관람



□ 나고야 3일차(2017.10.13)

1) 나고야 성(천수각 포함) 견학 및 나고야 텔레비전탑 주변관광

- 마지막 3일차에는 나고야 성(천수각 포함)을 견학 하였는데, 나고야 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 성으로써 나고야에 간다면 꼭 한번쯤 들러서 구경해볼만한 가치가 있는

곳이었다. 우리 일행이 간 날도 일본의 초등학생, 중학생들 또한 나고야 성에 견학을 많이 하고 있었다.

그리고 타워 오아시스 21 주변을 관광하면서 나고야에 도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.

나고야 성(천수각 포함)견학 및 타워 오아시스 21 주변관광



3 배울 점

- 세토시의회를 방문하고 그중에서도 우리시가 배울만한 점을 소개할까 한다. 그것은 세토시의회의 찬반 투표 기능으로 세토시의회에는 자리마다 찬성과 반대의 버튼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있다.



위 그림에서처럼 질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



몇 명이 찬성을 눌렀는지 반대를 눌렀는지 또한 누가 눌렀는지 까지 알 수 있는 기능이다. 그래서 세토시의 시민들은 방청을 하면서 어느 의원이 어느 제도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즉각 알 수 있다.

이러한 기능들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.

4 방문 후기

- 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세토시의회와 이천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공식 일정으로 의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천시의회와 세토시의회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, 또한 세토시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이었다.

이번 연수는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 아주 뜻 깊은 기회였다.